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정부, 조선과 해운 살린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1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주 지원을 위해 올해 8조원 규모의 제작금융을 지원한다고 보도됨. 또한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규모를 유지하는 동시에 적기에 발급한다고 보도됨. 해운업에는 1조 2,5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발표함. (선박뉴스)

Chinese yard finally delivers mini LNG carrier ordered in 2013

중국의 Cosco Shipping Heavy Industry(Dalian)이 소형 LNG선에 대한 인도식을 가졌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2013년에 수주한 28,000CBM급 LNG선으로 수주 후 7년만에 인도했다고 보도됨. 당초 납기는 2015년 1분기였으나 약 5년정도 지연되었다고 보도됨. (TradeWinds)

현대상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 인도 시작

현대상선이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명명식을 23일 개최했다고 보도됨. 현대상선은 4월 23일을 시작으로 1~2주 간격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올해 9월까지 24,000TEU급 12척을 인도 받고, 내년에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6,000TEU급 8척을 인도 받을 계획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Liner operators already seeing need to adjust to a reshaped world

해운사들이 COVID-19 팬데믹이 전세계 공급망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됨. 중국이 회복하고 있지만 북미와 유럽지역의 Lock-down이 유지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은 물론 기업들의 상품에 대한 수급방안 또한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민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US oil surges as Middle East tensions mount

전세계 에너지산업이 둔화되고 있으며 미국-이란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일 미국 원유 선물 가격이 20% 가량 급등했다고 보도됨. WTI 기준 +19.7% 오른 배럴 당 16.5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브렌트유의 경우 +4.7%오른 배럴 당 21.33달러를 기록함. (Upstream)

이란 혁명수비대 "이란 배 위협하는 미 군함 파괴 명령"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의 호세인 살라미 총사령관은 걸프 해역에서 미군 군함이 이란 배를 위협하면 파괴하라고 명령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힘.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2일 트위터를 통해 "이란 무장 고속단정이 바다에서 우리 군함을 성가시게 굴면 모조리 썩버려 파괴하라고 미 해군에 명령했다"라고 이란군을 위협함. (연합뉴스)